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

Romantic Era Composers

서문: 열정적인 낭만주의 시대

p.10~11



Romantic(낭만적인)은 많은 의미를 지닌 단어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 단어를 들으면 감정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정확히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실체이다. 그 음악은 감정들을 다루면서, 열정과 기쁨, 정신적인 관념들과 초자연적 것을 표현한다. 그것은 사랑, 분노, 비탄, 슬픔, 그리고 기쁨 같은 보편적인 감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음악의 낭만주의 시대는 음악사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 많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는 역사에서 작곡가들이 클래식 음악의 제약들을 버리고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시대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가장 많은 공통적인 참고 문헌들이 낭만주의 시대는 178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알게 되겠지만, 많은 작곡가가 동시대의 인기 있는 시와 이야기들에 동반하는 음악을 작곡했다. 미술, 문학, 그리고 연극은 이 시대의 많은 유명한 음악 작품들의 근간이었다. 그 음악 중 일부는 심지어 으스스하고 유령과 여타 초자연적인 것들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다른 음악은 폭풍우와 계절

들의 경우처럼 자연이라는 주제에 맞춰 만들어졌다. 어떤 음악은 사랑과 비통함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반영한다.

p.12~13

산업혁명은 이 당시에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악기들은 다르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은 연주가 더 쉬워졌다. 피아노는 더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피아노 현들이 더 길고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 페달들이 추가되어 피아노는 더 크게 만들어졌고, 더 좋은 소리를 냈다. 딸랑딸랑하는 중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인 첼레스타 같은 새로운 악기들이 고안되었다. 새로운 음악을 더 잘 즐기 위해 관현악단이 더 커졌는데, 더 많은 악기와 더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관현악단은 크면 클수록 더 좋았다.



문학을 즐겼다. 왕족과 귀족들은 교육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오로지 그러한 교육을 받을 만큼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클래식 음악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주회는 비공개였고, 단지 일부 정해진 사람들만 참석이 허용되었다.

1800년대까지는 오로지 왕과 왕비, 그리고 귀족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클래식 음악 연주회와

p.14~15

낭만주의 시대에 그것들이 모두 바뀌었다. 노동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혁명들이 일어났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전쟁, 나폴레옹 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있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다. 그들은 귀족들이 거의 모든 돈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귀족들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즐겨



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유럽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초의 대중 연주회를 하기 시작했으며, 누구든 티켓을 내면 참석할 수 있었다. 최초의 몇몇 자선 연주회는 프레데릭 쇼팽에 의해 열렸다.

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유럽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초의 대중 연주회를 하기

p.16~17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음악으로 옮겼다. 작곡가들은 그들의 영감을 위해 그림, 문학, 연극, 종교, 그리고 자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영감 중 어떤 것들은 강렬한 감정과 심지어는 환상을 나타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했다. 역대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에 모두 살았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가 두 시대 모두를 가장 잘 이용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는 고전주의 시대에 작곡을 시작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란츠 슈베르



트와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작곡하고 있었다. 프란츠 슈베르트는 낭만주의 운동 당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1,000곡이 넘는 작품을 썼으며, 다른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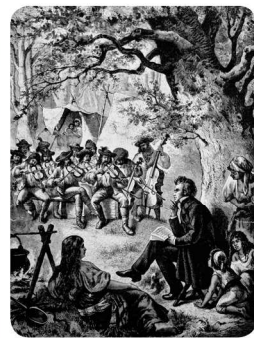
이 시대의 다른 유명한 작곡가들 속에는 구스타프 말러, 요하네스 브람스, 엑토르 베를리오즈, 리하르트 바그너, 프란츠 리스트, 주세페 베르디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은 그들의 음악 중 일부를 듣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싶을지도 모른다. 많은 낭만주의 시대 음악은 감정들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슈베르트와 세 명의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 그리고 무엇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읽을 것이다. 이 네 명의 작곡가들은 그 음악적 시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은 낭만주의 시대 전체의 음악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음악을 즐긴다면, 알아야 할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이 더 많이 있다.

1장. 프란츠 슈베르트, 현악 4중주의 대가

p.20~21

프란츠 슈베르트는 음악의 낭만주의 시대 초기인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로 잘 알려졌다. 아버지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가정부로 일했었다. 프란츠는 열네 명의 자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가 확실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학교를 다니며 읽기와 쓰기, 수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음악 수업에 가곤 했다. 아버

지는 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형은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 그 가족은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프란츠는 13살의 나이에 자기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연주할 최초의 현악 4중주곡을 썼다.

p.22~23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음악 4인조였고, 프란츠는 비올라를 연주했는데, 그것은 바이올린보다 더 크다. 그의 두 형제는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비올론첼로를 연주했다. 보다시피, 이 악기들의 명칭은 모두 viol이라는 글자들로 시작되고, 그것들은 전부 소위 바이올린 군(群)의 일원이다. 이 악기들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고, 4개의 현이 있으며, 활로 연주된다. 비올론첼로는 또 첼로라고도 불리는데, 그 악기들 중에서 제일 크고 가장 음이 낮다. 그것의 밑에는 막대처럼 생겨서 바닥으로부터 비올론첼로를 분리해 받쳐주는 핀이 있다. 비올라는 첼로보다 한 옥타브 더 높게 조율되지만, 바이올린보다는 소리가 더 낮다. 그것은 그 바이올린 군에서 중간 악기이다. 바이올린은 첼로와 비올라보다 더 작고, 그것이 연주하는 음악은 비올라보다 소리가 더 높다. 악곡에서 제1 바이올린은 보통 멜로디를 연주하고, 제2 바이올린은 보통 화음



이나 보완적인 리듬을 연주한다.

p.24~25

프란츠 슈베르트는 평생 끊임없이 실내악을 작곡하고 연주했다. 그의 현악 4중주곡들은 아직까지도 그 누구든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의 최고 작품들 가운데 몇 곡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슈베르트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고,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최고가 아니었다. 이따금 프란츠는 동네의 악기 창고에 가곤 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질이 좋은 악기



들을 연습할 수 있었다. 그는 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고, 겨우 일곱 살 때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슈베르트가 대단한 성악적 재능을 지녔다고 인정했다. 살리에리는 비엔나 음악계에서 저명한 사였기 때문에 프란츠 슈베르트가 슈타트콘빅트라는 궁정신학교에서 성가대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슈베르트는 1808년에 그 학교에 다니면서 오페라 및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클래식 교향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p.26~27

슈타트콘빅트에 있는 동안 슈베르트는 요제프 폰 슈파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학생을 만났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슈베르트는 너무 가난해서 곡을 적어 놓을 종이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슈파운이 그를 위해 종이를 사주었다. 지속적인 종이 공급으로 슈베르트는 최초의 관현악과 실내악, 교향곡, 그리고 여러 피아노곡을 만들었다. 그가 교회에서 받은 초기 성가대 수업들은 그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그는 많은 종교적 합창곡들을 작곡했다. 그는 살리에리에게 계속 개인 지도를 받았고, 아직 십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슈타트콘빅트 관현악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프란츠 폰 쇼베라는 이름의 부자를 포함해 많은 평생지기를 사귀었다. 이 친구들은 슈베르트의 음악을 홍보하는 것을 도왔다.

슈베르트의 어머니는 181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관악 8중주 F 장조 D. 72



를 작곡하기 시작했지만, 끝내지는 못했다. 관악 8 중주곡은 호른, 바순, 오보에, 그리고 클라리넷처럼 호흡을 이용하여 연주되는 여덟 개의 악기를 위해 쓰여진다. 4중주에서와 같이 각기 다른 악기들이 자신의 파트를 연주한다.

p.28~29



그는 1813년에 자퇴를 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교사가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아버지

를 돕기 위해 거의 3년간 가르쳤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는 안토니오 살리에리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다. 1814년에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젊은 소프라노 가수 테레제 그로브를 만났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슈베르트는 1815년에 테레제를 위해 많은 노래를 작곡했다. 슈베르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가난했고, 그녀는 부유한 비단 제조업자의 딸이었다. 1815년 법에는 남자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슈베르트는 음악에서 보수가 더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테레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입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그는 비통했다. 이별 선물로 슈베르트는 테레제의 오빠 하인리히에게 가곡 모음집을 보냈다.

p.30~31

1816년, 프란츠 폰 쇼버는 슈베르트에게 자기와 함께 살러 오라고 초대했다. 슈베르트는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친구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는 1년 내내 한 곡 한 곡씩 작곡에 몰두했다. 지금까지 그는 수백 개의 가곡을 썼는데, 그 곡들은 피아노 반주로 한 사람이 부르는 독일 노래들이다. 그는 또 관현악단과 교회 합창단을 위한 곡들도 많



이 썼다.

슈베르트의 친구들은 슈베르티아데라는 파티를 열어 그의 작품을 홍보했다. 그 파티들에서 슈베르트의 음악이 연주되었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시를 낭송했다. 이 파티들이 슈베르트를 비엔나 음악계에서 인기 있도록 만들었다.

p.32~33



비록 슈베르트가 인기를 얻고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1817년에 아버지와 함께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어, 1818년에 요한 카를 에스터하지 백작 가족의 개

인 음악 교사가 되었을 때 뜻밖의 행운을 잡았다. 보수가 좋았고, 그는 그들의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었다. 그는 백작의 어린 두 딸인 마리와 캐롤라인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남은 시간은 모조리 작곡을 하며 보냈다. 그는 두 소녀를 위해 피아노 2중주곡들을 썼다. 이 2중주곡들 가운데 하나를 〈군대 행진곡 D 장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바꿨다. 그는 1828년에 〈환상곡 F 단조〉라는 또 다른 2중주곡을 작곡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어린 제자인 캐롤라인 여백작에게 헌정했다.

p.34~35

1819년과 1820년에 슈베르트는 더 종교적인 음악과 칸타타들을 썼는데, 칸타타는 노래로 불려지고

악기 반주도 있다. 슈베르트는 오페라를 아주 좋아했으며, 1820년대에는 20편이 넘는 오페라와 무대 작품들을 썼다. 그



것 중 하나인 <피에라브라스>는 악보가 1,000페이지 이상이였다. 그것 중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1825년, 그는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 있는 동안 월터 스코트의 <호수의 여인>을 바탕으로 연작 7곡을 작곡했다. 이 시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보스웰 백작 제임스 더글러스 사이의 싸움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7곡에는 '벚노래'라는 합창곡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장 만세'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또한, 엘렌의 노래라고 불리는 3곡의 독창곡도 있다. 그것들은 보스웰 백작의 아름다운 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었다. '엘렌의 가곡 III(엘렌의 세 번째 노래)'은 '아베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베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성모송 기도이다.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은 월터 스코트가 쓴 가사를 노래하지 않고, 그것들을 성모송 기도로 바꾸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듣고 있는 버전이다.

p.36~37

그는 또 1825년에 피아노 소나타 A 단조, D. 845를 작곡했다. 이것은 교향곡 C 장조, D. 944의 시작으로 C 장조 더 그레이트로도 불린다. 그는 1826년에



그 교향곡을 완성했다. 사실, 그는 항상 작곡을 하고 있었다! 그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을 대단히 존경했지만, 자신이 그 위대한 음악가만큼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C 장조, D. 944는 약간 베토벤 음악의 일부처럼 들린다. 1827년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슈베르트는 그의 장례식에서 햇불을 들었다. 프란츠 슈베르트는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떠벌리지 않았다. 그는 슈베르티아데에서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들 앞에서는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 작품들을 연주했다.

드디어 서른한 살이던 1828년에 슈베르트는 자신의 작품들로 연주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죽음과 소녀'의 변주곡들이 들어 있는 그 유명한 현악 4중주 D 단조, D. 810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음울, 즉 어둡고 침울하지만 그의 더 앞선 몇몇 작품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4중주곡이나. 원래 그는 아플 때 이 곡을 썼고, 그 곡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는 <환상곡 G>로도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G 장조도 연주했다. 이것이 그가 연주회에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한 유일한 때였다.

p.38~39

그해 말에 슈베르트는 아프기 시작했고, 그가 작곡한 마지막 작품들은 더 조용하고, 심지어는 슬픈 음색을 나타낸다. 여름에 그는 두통과 부



어오른 관절, 그리고 열병으로 지독히 아팠다.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해냈다. 11월에 그는 친구 프란츠 폰 쇼버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는 또 요제프 폰 슈파운의 마지막 방문을 받았다. 슈베르트는 1828년 11월 19일에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전 해

에 세상을 떠난 베토벤 옆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친구와 가족들은 슈베르트가 그 유명한 작곡가가 가까이 묻히게 해 주었다. 그의 사망 원인이 장티푸스였다는 설들이 있지만, 그의 인생 전성기에 무슨 병이 이 재능 있는 작곡가를 사망하게 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겨우 서른한 살이었다. 슈베르트의 많은 친구들은 그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울 돈을 모으기 위해 두 차례 연주회를 열었다. 그 연주회들은 성공적이었으며, 오늘날 아름다운 기념물과 슈베르트의 흉상이 그의 무덤을 표시하고 있다.

2장. 프레데릭 쇼팽, 피아노의 시인

p.42~43



여러분은 피아노를 치는가? 다른 악기들처럼 피아노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에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만약 여러분이 피아노 학습자라면, 여러분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에튀드라는 곡을 연습시켰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프레데릭 쇼팽이 그 곡을 작곡했을 것이다. 쇼팽은 1810년 초 언제쯤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일은 약간 의문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프레데릭 쇼팽에 관한 가장 특이한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의 시신은 두 곳에 묻혔다!

쇼팽은 자신이 1810년 3월 1일에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그의 세례 증명서에는 그가 1810년 2월 22일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폴란드 바르샤바 공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쇼팽은 네 아이 중 둘째였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고, 바르샤바 라이시움이라는 학교에서 불어와 불문학을 가르쳤다. 프레데릭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일곱 살 무렵에 이미 '꼬마 쇼팽'으로 불리면서, 음악 천재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와 비교되었다. 그는 부자들을 위한 연주회에서 연주했고, 대중적인 자선 연주회에서도 연주했다. 쇼팽이 열두 살 때 그의 음악 선생님은 쇼팽에게 더 이상의 교습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쇼팽이 이미 그의 선생님보다 음악에서 더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p.44~45

열세 살에서 열여섯 살이던 1823년부터 1826년까지 쇼팽은 아버지가 근무했던 바르샤바 라이시움에 다녔다. 그는 여름방학을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사유지에서 보냈다.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민속 음악을 듣고, 민속춤을 보았던 곳이다. 쇼팽은 이 음악을 즐겼고, 그 노래들과 악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학교로 돌아와서 쇼팽은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썼다. 그는 피아노 협주곡과 여러분에게 밤을 생각하게 만드는 꿈을 꾸는 듯한 작품들인 이상곡, 춤곡으로 종종 사용되었던 왈츠,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그가 들었던 폴란드 민속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춤곡인 마주르카들을 작곡했다.



그가 바르샤바 음악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의 스승은 쇼팽을 음악 천재라고 말했다. 사실 쇼팽이 러시아의 차르인 알렉산더 1세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차르가 그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어린 음악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쇼팽이 겨우 열다섯 살 때의 일이었다!

p.46~47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1829년, 쇼팽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짧은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의 많은 다른 작곡가



들이 공연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어쩌면 유명해지기 위해 유럽 음악계와 디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스무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비엔나의 유명한 극장인 케르트너토어시어터에서 두 차례 공연했다. 청중들은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2〉와 〈론도 아 라 크라코비아크, op. 14〉를 아주 좋아했다. 비평가들은 그를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렀다. 그 결과, 그의 〈변주곡, op. 2〉는 비엔나의 음악 제작자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것이 바르샤바 밖에서 출판된 최초의 쇼팽 음악이었다.

그는 고국 폴란드로 돌아가 계속 작곡을 하고 공연을 했다. 그가 1829년과 1839년 사이에 작곡한 곡들 중 일부는 에튀드였다. 에튀드라는 단어는 ‘연습곡’을 의미한다. 그는 특별한 피아노 기교에 대한 연습이나 연구로 에튀드를 작곡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쇼팽의 에튀드를 연습한다. 그는 이런 에튀드를 27곡 썼다. 그것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그룹의 에튀드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Op. 10, no. 3로, 때때로 슬픔을 의미하는 〈트리스테스〉, 또는 이별을 의미하는 〈라듀〉로 불린다. 두 번째 그룹에서 유명한 에튀드는 Op. 25, no. 1이다. 그것은 〈에올리온 하프〉로도 불리며, 하프 연주 소리를 흉내낸다. 세 번째 그룹의 에튀드는 피아노 교본의 일부로 작곡되었다. 그것들은 ‘세 개의 새로운 연습곡’을 의미하는 〈트와 누벨 에튀드〉라고 불린다.



p.48~49

1829년 초에 쇼팽은 피아노와 관현악단을 위한 두 개의 협주곡을 썼는데, 하나는 F 단조이고 하나는 E 단조이다. 그는 한 소프라노 가수를 좋아했는데, 피아노 협주곡 2번 F 단조가 그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다. 포즈난 대공국의 총독은 쇼팽의 음악을 높이 평가해서 베를린에 와서 공연해 달라고 그를 초청했

다. 그러나 쇼팽은 비엔나에서 성공을 계속 이어가고 명성을 더 잘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30년 말, 쇼팽은 친구 한 명과 비엔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비르사비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고별 연주회를 했다. 그는 자신의 협주곡 E 단조를 연주했고, 그가 사랑했던 그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쇼팽은 비엔나로 떠났고, 그가 도착한 지 며칠 후에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쇼팽의 친구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 바르샤바로 돌아갔지만, 쇼팽은 비엔나에 머물렀다. 러시아가 바르샤바를 함락하자, 수많은 폴란드 국민이 프랑스 파리로 탈출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폴란드를 떠난 그 사람들을 망명자라고 불렀다. 쇼팽도 파리로 가서 동포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는 폴란드 망명자들을 위한 돈을 모금하려고 자선 연주회에서 연주했다. 그는 다른 모금 행사들도 조직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그는 프란츠 리스트와 엑토르 베를리오즈 같은 몇몇 유명한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와 연주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의 명성은 파리에서 높아졌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라이프치히, 그리고 영국 런던의 출판사들이 그의 음악을 출판했다.

p.50~51

쇼팽은 많은 군중을 위해 공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소수의 청중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은 많은 그의 음악이 피아노만을 위해 작곡된 것이어서 그것은 연주회장보다는 작은 홀에서 가장 좋게 들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이 아주 경쾌하면서도 사색적이고 다른 많은 감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렸다. 쇼팽은 언젠가 이렇게 썼다. '네 영혼을 모두 그것에 담고, 네가 느끼는 대로 연주해라!' 오늘날, 전문가들은 쇼팽의 작품들이 우리의 현대식 피아노 기교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쇼팽이 파리에 있는 동안, 그는 러시아 차르에게 의도적으로 불복종했고 그의 여권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프랑스에서 정치적 난민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친구들과 가족을 보러 고향인 바르샤바로 결코 갈 수 없다는 의미였다. 대신, 그는 휴가 동안 폴란드 밖에서만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독일과 여타 장소들에서 만났다.

쇼팽은 음악을 가르치고, 여행을 다니고, 공연을 하는 정신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로 인해 그는 가끔 병이 났다. 그가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의 부모는 그가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돌보는 경우에만 승낙할 거라고 말했다. 그 해 겨울에 그는 병이 들었고, 마리아의 부모는 약



혼을 켜다. 그들은 쇼팽이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몹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쇼팽은 이 일로 상심했고 슬퍼졌다. 그는 그녀의 편지들을 모두 함께 포장해서 그것들에 '나의 슬픔'이라는 표를 붙였다.

p.52~53



그는 마리아를 잊으려는 노력으로 1837년에 런던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망틴 루실 오로르 뒤팡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여러분은 그녀를 작가 조르주 상드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그녀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마요르카에 머무는 동안, 쇼팽은 폐에 영향을 미치는 중병인 결핵인 것 같

은 것으로 아팠다. 그 후에 그들은 프랑스의 노양에 머물렀는데, 그곳 날씨가 그의 폐에 더 좋았다. 프랑스에서 상드와 보낸 여러 해 동안 쇼팽은 그의 가장 유명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들은 1847년까지 연인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 헤어졌다. 이로 인해 쇼팽은 우울해져서 거의 완전히 작곡을 포기했다. 1847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거의 곡을 쓰지 않았다.

은 것으로 아팠다. 그 후에 그들은 프랑스의 노양에 머물렀는데, 그곳 날씨가 그의 폐에 더 좋았다. 프랑스에서 상드와 보낸 여러 해 동안 쇼팽은 그의 가장 유명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들은 1847년까지 연인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 헤어졌다. 이로 인해 쇼팽은 우울해져서 거의 완전히 작곡을 포기했다. 1847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거의 곡을 쓰지 않았다.



1848년 4월, 쇼팽의 학생 중 한 명이 스코틀랜드의 성들을 포함한 순회공연을 가사로 그를 설득했다. 비록 그의 기분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이 여행은 그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 스코틀랜드의 춥고 습한 날씨는 그의 폐에 좋지 않았다. 1848년 11월, 그는 런던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그것은 런던의 길드홀에서 있었던 폴란드 망명자들을 위한 연주회였다. 그 후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아파서 다시는 연주하지 못했다.

p.54~55



피아노의 시인인 쇼팽은 1849년 10월 17일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음악에는 그의 작품 중 일부인 피아노 소나타 2번의 '장송 행진곡'과 전주곡 6번 B 단조뿐만 아니라 전주곡 4번 E 단조가 포함되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를 살피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폴란드를 너

무 많이 사랑해서 자신의 심장을 폴란드 바르샤바에 묻어 달라고 요청했다. 쇼팽의 누이가 그의 심장을 바르샤바로 가져가서 성 십자가 교회의 유골함에 안치했다. 따라서 그의 육체적 심장은 폴란드에 있지만 나머지 몸은 프랑스에 묻혀 있다. 프레데릭 쇼팽은 생전에는 절대로 바르샤바에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지금 그가 아주 사랑하는 고국에 잠들어 있다.



3장.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이야기꾼

p.58~59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러시아 작곡가 중 한 명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이다. 여러분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사탕 요정의 춤>을 흥얼거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같은 다른 유명한 발레 음악들도 작곡했다. 그의 발레 작품들과 많은 음악은 아주 사랑받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에서 1840년 5월 7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 감독관이자 금속 공사 관리자로 일했다. 쇼팽과 마찬가지로 차이코프스키도 아주 어릴 때 피아노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네 살 때,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노래를 작곡했고, 다섯 살 때



는 피아노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연습한 일부 악곡들은 프레데릭 쇼팽의 마주르카였다!

p.60~61

차이코프스키의 부모는 그가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가 공직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차이코프스키는 열아홉 살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법무부에 취직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부가 아니라 음악에 있었다. 차이코프스키는 10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음악 교습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 음악 협회에 다녔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개원했을 때는 그 학교 최초의 작곡과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강의를 듣는 동안, 그는 점차 모차르트의 음악과 이탈리아 음악의 진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음악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법무부 일을 그만두었다.



차이코프스키는 1865년 12월에 졸업한 다음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모스크바로 옮겨갔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인 교향곡 1번 G 단조와 역시 첫 번째 오페라인 <보예보다>를 작곡했다. 그는 그 작품들에 이어 더 많은 교향곡과 오페라, 협주곡들을 만들었다. 1875년에 그는 발레 작품인 <백조의 호수>를 완성했다. 1877년 2월에 했던 <백조의 호수> 초연은 대실패였고, 극장에서는 그것을 중단시켰다. 오늘날, <백조의 호수>는 상징적인 발레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p.62~63

1877년 여름,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의 음악 제자 중 한 명인 안토니나 밀류코바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곧바로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수주일 후에 그 지역을 떠나 다시는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슬프고 우울해졌지만 계속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다. 나데즈다 폰 메크라는 철도왕의 부유한 미망인이 그의 작품에 대단히 감탄했다. 그녀는 차이코프스키에게 연락해서 그가 작곡을 계속한다면 매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녀는 요구 조건을 하나 달았다. 차이코프스키는 그녀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동의했고, 그의 신비스러운 후원자의 관대함은 그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는 데 그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에 그는 그의 유명한 〈1812년 서곡〉을 썼다.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3세와 그의 가족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즐겼다. 알렉산더 3세는 차이코프스키를 고용해서 1883년에 황제 대관식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게 했다. 그 후, 그는 그 작곡가에게 평생 연금과 차르의 개인 선물로 값비싼 반지를 수여했다. 게다가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알렉산더 3세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는 대단한 영광인 국장을 치러주었다.

p.64~65

차이코프스키는 돈 걱정이 없어져서 1885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클린이란 지역의 시골 거처로 물러났다. 매일 아침 그는 책을 읽고 숲 속에서 거닐었다. 오후에는 작곡을 했다. 저녁에는 친구

들을 접대하고 그들과 피아노 2중주를 연주했다. 그것은 나데즈다 폰 메크가 돈을 대는 호화로운 삶이었다. 47세였던 1887년 12월에 그는 최초의 유럽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1888년에 두 번째 유럽 투어에 나서 새로운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는 발레 작품인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썼다. 1890년에는 또 하나의 영감이 쏟아져 나와 겨우 44일 만에 〈스페이드의 여왕〉이라는 오페라를 썼다!



메크는 그때 차이코프스키에게 14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더 이상의 돈을 보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차이코프스키는 몹시 울적해졌는데, 왜냐하면 비록 그녀의 돈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친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결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서로 수백 통의 편지를 썼었다. 그 편지들에서 차이코프스키는 메크를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

p.66~67

1891년, 차이코프스키는 카네기 홀 개관을 위해 뉴욕 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대관식 행진곡〉을 공연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는 워싱턴 D.C., 볼티모

어, 필라델피아,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버펄로에서 투어를 했



다.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오페라 〈이올란타〉와 발레 작품 〈호두까기 인형〉을 끝냈다. 〈호두까기 인형〉은 첼레스타라고 하는 당시의 아주 새로운 악기를 사용했다. 이것은 황홀하고,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낸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탕 요정의 춤〉에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다. 〈해리포터〉 영화들이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인 <헤드위그의 테마>도 이것의 매혹적인 특징 때문에 첼레스타를 사용하고 있다.

차이코프스키는 쇼팽이 방문했던 곳과 똑같은 여러 도시인 라이프치히, 베를린, 파리, 그리고 런던에서의 유럽 순회공연에서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차이코프스키는 1893년 6월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것은 상당히 영광이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진정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또 한 명의 음악 천재였다. 1893년 동안에 그는 <비창>이라고 불리는 교향곡 6번 B 단조를 작곡했다. 차이코프스키는 1893년 10월 28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음악 협회에서 <비창>의 최초 대중적인 공연을 지휘했다. 그 음악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진지한 음조를 가지고 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것을 자신의 최고작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청중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그의 출판업자에게 편지를 썼다. '이상한 일이 이 교향곡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쾌했던 것이 아니라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으로서, 다른 어떤 제 작품들보다 이것이 더 자랑스럽거든요.'

p.68~69

닷새 후인 11월 2일, 그는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기는 병인 콜레라에 걸렸다. 콜레라는 그 해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염병이었다. 그는 나흘 후인 11월 6일,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비창>을 공연한 지 겨우 9일만인 53세에 세상을 떠났다. 차이코프스키



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음악계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후 몇 달간 그의 유명한 교향곡이 런던과 모스크바에서 공연되었다. 청중들은 그 어둡고 음울한 곡을 듣자, 차이코프스키가 자기의 죽음

을 예감했거나 미리 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차이코프스키가 <비창>을 자신의 진혼곡으로 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더 많은 소문이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독약을 먹고 자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1893년부터 모든 신문 기사들은 콜레라로 인한 합병증을 그의 사망 원인으로 명시했다. 훗날, 연구자들은 자살 소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제 우리는 차이코프스키가 그의 인생과 창작력에서 최고 절정일 때 끔찍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안다.

4장.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종을 사랑한 작곡가

p.72~73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 가운데 마지막에 속하는 한 사람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이다. 이 시기의 다른 작곡가들처럼

그의 음악으로 인해 그는 전 세계를 누볐고, 마침내는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에 정착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1873년 4월 1일에 러시아 노브고로드 지방의 일멘 호수 근처에 있는 그의 가족 사유지에서 태어났다. 라흐마니노프 가족 구성원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다. 그들은 다섯 곳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친구였다. 라흐마니노프의 아버지는 퇴역 육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장군의 딸이었다. 비록 네 살 때 음악 교습을 시작했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아버지처럼 장교로 육군에서 복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행로를 바꿔놓는 네 가지 비극이 일어났다. 라흐마니노프의 아버지는 파티를 열고, 도박을 포함하여 게임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또 나빠지는 위태로운 사업들에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의 땅이나 사

유지 일부를 팔곤 했다. 그렇지만 1882년까지 라흐마니노프의 아버지는 가족의 마지막 재산까지 잃었고, 그들은 모든 사유지를 팔아야 했다.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었다.

p.74~75

라흐마니노프는 차이코프스키가 다녔던 똑같은 학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계속 음악 교습을 받았다! 같은 해, 라흐마니노프의 누이 소피아가 점막을 공격해서 삼키거나 호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인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두 번째 비극이었다. 현대 의학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디프테리아로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 병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는다. 누이 소피아의 죽음 이후, 라흐마니노프의 아버지는 매우 상심한 나머지 가족을 떠나 모스크바로 갔다. 이것이 세 번째 비극이었다. 당시에는 남편 없이 여자가 아이들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아주 힘들었다.

라흐마니노프의 다른 누이인 엘레나는 재능 있는 무용수였다. 그녀는 발레와 오페라로 유명한 볼쇼이 극장에 입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혈액병인 빈혈에 걸리고 말았다. 빈혈은 혈액이 산소를 세포까지 운반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엘레나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네 번째 비극이었다. 이 모든 일이 1885년까지 일어났다! 여러분은 세르게이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학교 수업에서 낙제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의 할머니가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의 정신적 훈련을 떠맡아 그를 러시아 정교회에 데리고 다녔다. 그는 예배 동안에

나는 종소리들을 아주 좋아했고, 나중에 자신의 음악의 많은 부분에 그것들을 포함시켰다.

p.76~77



그가 학교에서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 시작하자, 사촌인 알렉산더 실로티가 돕기로 했다. 실로티는 성공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고, 세르게이를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보내 니콜라이 즈베레프라는 엄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했다. 라흐마니노프가 이 교사로부터 배운 훈육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그토록 훌륭한 피아노의 거장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할머니, 사촌, 그리고 교사에게 그의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시절, 그는 〈알레코〉라는 오페라를 작곡했다. 졸업할 때는 그 곡으로 대금메달이라고 하는 대단한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주 인기가 높아진 전주곡 C# 단조라는 작품도 작곡했다. 그가 살아 있던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그에게 그들을 위해 그 곡을 연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흐마니노프는 1893년 여름을 작곡을 하며 보냈고, 가을에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만났다. 라흐마니노프는 그 유명한 러시아 음악가를 존경했다. 그들은 공동 작업에 대해 논의했지만, 먼저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오페라 〈알레코〉를 지휘하기 위해 키예프에 가야만 했다. 그가 모스크바로 돌아올 즈음, 차이코프스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두 명의 위대한 작곡가가 함께 작업했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알겠는가? 공교롭게도 1897년에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 D 단조가 최초로 발표되었고 청중들은 그것을 아주 싫어했다. 라흐마니노프는 감성적이었고, 가혹한 비평들은

그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는 3년간 어떤 음악도 더 쓰지 않았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도록 도와준 의사를 찾아갔다. 이후에 그가 작곡한 첫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2번 C 단조였는데, 그 곡은 그의 주치의에게 헌정되었다. 라흐마니노프는 1901년 초연에서 그것을 연주했고, 청중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p.78~79



1902년, 그는 나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사티나와 결혼했다. 그녀는 라흐마니노프의 사촌이었지만, 당시에는 특히 귀족 계층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그들은 41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1904년에 그는 누이 엘레나가 입단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로 그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로 취임했다. 2년 후, 그는 작곡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그 자리를 사임했다. 그는 1909년에 미국에서 순회공연을 했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더 많은 순회공연을 다시 요청받았다. 그러나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이 그를 즐겼던 만큼 미국을 즐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로 돌아갔다.

1913년에 그는 〈중〉이라는 합창교향곡을 작곡했다. 그 곡은 낭만주의 시대의 미국 시인이자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시에 바탕을 두었다. 그의 시 〈중〉은 딸랑거리는 썰매 방울들로 행복하게 시작한다. 이어, 그 다음 연에서 포는 기쁜 결혼식 중에 대해 쓰고 있다. 셋째 연은 행복으로부터 눈을 돌려 경중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이자 마지막 연에서는 장례식에서 울리는 조중에 대해 쓰고 있다. 그의 시는 탄생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인생 행로를 묘사하고 있다. 포의 글은 종종 낭만주의의 공통적 주제인 죽음과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음악에 종소리를 집어넣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포의 4연시는 4악장 합창교향곡 〈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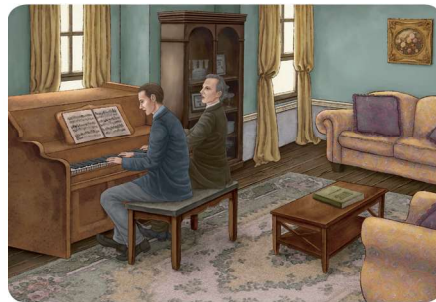
위한 완벽한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p.80~81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러시아 사람들은 재워 중인 차르를 죽이고 귀족을 없애고 싶어 했다.

기억하자, 라흐마니노프와 그의 가족은 귀족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주해야 했다. 그들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작품들이 담긴 공책 몇 권만 챙긴 채 썰매를 타고 러시아를 떠났다. 그 가족은 스칸디나비아로 탈출했다.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에서 활동하라는 제안을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1918년에 그의 가족들은 뉴욕으로 옮겨갔다. 악기 제조사인 스타인웨이는 그에게 그가 순회공연 때 사용하는 피아노를 주었다. 그는 최초의 음반회사 중 하나인 빅터 토킹 머신과 계약도 했다. 라흐마니노프는 그 회사의 전속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으며, 그 회사와 1920년에서 1942년까지 음악을 녹음했다.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아들딸이 될 만큼 젊은 클래식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좋은 친구가 되었다. 호로비츠는 라흐마니노프를 아주 존경했고,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라흐마니노프의 집에서도 함께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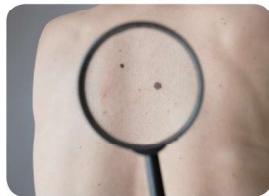
p.82~83

미국에서의 이 모든 연주회와 음반 녹음은 라흐마니노프에게 작곡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는 스

위스에 집을 지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1932년부터 1939년까지 매년, 그는 스위스에서 작곡을 하며 여름을 보냈다. 이곳이 1934년에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935년과 1936



년에 교향곡 3번 A 단조(op. 44)를 쓰고, 관현악단을 위한 <교향적 무곡>(op. 45)을 시작했던 곳이다. 니콜로 파가니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이 작품은 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 후, 라흐마니노프는 베벌리 힐스로 이사해서 1940년에 <교향적 무곡> 작곡을 마쳤다.



1942년 순회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는 병에 걸렸다. 그는 흑색종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은 암

의 일종이다. 라흐마니노프는 암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1943년 2월에 그와 그의 아내는 둘 다 시험을 치러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는 1943년 2월 17일에 그의 마지막 공연을 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그가 3악장에 '장송행진곡'이 포함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연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것들은 쇼팽의 장례식에서 연주되었던 것과 똑같은 악장들이다. 라흐마니노프는 한 달을 겨우 넘긴 1943년 3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p.84~85

라흐마니노프는 오페라와 피아노 협주곡들뿐만 아니라 합창단을 위한 아카펠라도 썼다. 아카펠라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 외에 어떤 악기도 없이 불려진다.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아카펠라

작품인 <철야 기도>가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스위스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전시에 스위스에 있는 그의 집으로 시신을 보내는 일은 너무 어려웠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낭만주의 시대의 것이지만, 일부 작품들은 현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특히 낭만주의 시대가 끝난 후인 1930년대에 스위스에서 작곡된 음악들이 그렇다. 그는 모차르트, 쇼팽, 그리고 차이코프스키를 존경했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썼다. '음악은 한평생을 위해 충분하지만, 한평생은 음악을 위해 절대 충분하지 않다.'

이 네 명의 작곡가들은 모두 음악 천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는 동안 역경을 이겨냈지만, 그 역경이 그들로 하여금 작곡을 멈추게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다. 그들은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기억하겠지만, 슈베르트는 베



토벤을 존경했고, 그의 옆에 묻혔다. 차이코프스키는 쇼팽의 마주르카를 연주했다. 라흐마니노프는 차이코프스키가 충분히 오래 살았더라면 그와 함께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 작곡가들의 삶은 열정과 변화의 시대인 낭만주의 시대를 관통하며 겹쳐지고 확장되었다. 그들이 살면서 겪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혁명, 전쟁과 소요, 그리고 개인적 비극들은 모두 그들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낭만주의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인 깊은 감정들과 아름다움을 자아낸 음악이 나왔다.